



湖南新聞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송호빈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지역

7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여수시, 2026 세계섬박람회

본격 준비…용역 계약 체결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2021년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 신청

여수시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시는 지난 16일 (주)플레이스랩과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플레이스랩은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한 연구용역 업체로 최근에는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앞으로 용역사는 8개월 동안 기초조사와 자료수집, 섬 생태와 문화 탐방,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섬박람회 기본 틀을 마련한다.

최종 용역 결과물은 차수보고회, 설문조사, 공청회, 중간보고회, 부서

의견 수렴, 최종보고회를 거쳐 오는 12월 완성될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상반기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에 국제행사 개최를 협의할 방침이다.

2021년 상반기에는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하고, 박람회 개최 전까지 11개 연륙·연도교와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여수시는 섬박람회 개최를 위해 시민 참여와 홍보에도 집중한다.

먼저 이달 25일 시민 190여 명으로 구성된 여수 섬 박람회 시민 포

럼을 출범한다.

시민 포럼은 섬투어와 섬 박람회 홍보, 섬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8월에는 목포시·신안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회 섬의 날 행사에 참여해 여수의 365개 섬과 11개 연륙·연도교를 주제로 한 체험 이벤트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경험과 신진 시민 의식, 풍부한 인프리를 바탕으로 섬 박람회를 반드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영암군, 2019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시행

영암군이 지역 저소득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하여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칭 적립해 만기 시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 기반 조성을 활용토록 한 통장 운영 사업을 말한다.

사업 대상은 전남도 내 주민 등록을 둔 만 18세~만 39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으로, 사업 지원 상 저소득이란 월 평균 급여가 200만원 이하이고 기구소득인정액이 기준증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말하며, 근로 청년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사업 공고일 기준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는 자를 뜻한다.

영암=조대호 기자

곡성장미축제, 개막 3일 만에 8만명 유혹

비가 와도 장미는 핀다. 그리고 아름답게 피어난 장미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내리는 비도 막지 못했다.

17일부터 곡성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9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내리는 빗 속에도 3일 간 8만여 명의 관객을 유혹하며 흥행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17일 개막식에는 전남도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 를 빛냈다. 장미 블루밍 개막 퍼포먼스를 통해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이튿날인 18일 주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객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18일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렸지만 2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았으며, 19일까지 3일 만에 8만여 방문객이 곡성을 찾으며 전국 흑자축제 1위의 명성을 실감케 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군 1004 장미공원에는 1004가지 품종의 장미가 1004가지 서로 다른 색깔과 모양, 향기로 피어나며 가족, 연인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축제 이벤트로는 수천송이의 장미 속에서 황금장미를 찾는 참여자에게

순금 1돈을 증정하는 행운의 황금장미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중앙무대에서 펼쳐지는 디채로운 공연과 축제장 곳곳에서 진행되는 게릴라 뮤지컬, 컬러풀 길거리 퍼포먼스 등도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장미공원 내 유리온실과 하늘정원, 진단광장의 메리미존, 중앙광장 토파어리 등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비가 온 뒤라 이번 주에는 더욱 싱그럽고 화사하게 만개하는 장미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미축제의 흥행에 즐거워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화순군, 노지고추 초기 병해충 집중 관리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적용 따른 등록된 약제 살포



화순군은 노지고추 정식 초기에 병해충을 집중 방제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바이러스에 의한 고추 피해는 대부분 진딧물과 종체벌레에 의하여 옮겨진다. 해충이 외부에서 밭으로

날아오는 5~6월에는 방제를 철저히 해야 바이러스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찾은 강우와 폭염으로 인하여 고추 단자병은 재배에 방제하지 못하면 현저히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농약안전 사용기준에 맞춰 계통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서 살포해야 효과적이다.

토마토반점위 조비아리스(칼라병)가 고추에 발생하면 잎이 노랗게 되고 오그라들며 새순을 괴시킨다. 과실에는 얼룩덜룩한 반점을 만들어 상품성을 잃게 만든다. 병이 심해지면 식물 전체가 말라 죽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기운이 점점 올라가면서 해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시로 병해충 발생 여부를 살피고 종체벌레, 진딧물을 적기 방제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무안군, 황토갯벌랜드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

무안군은 오는 25일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김성캠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태갯벌과학관 앞 푸른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작은 운동회, 미술소, 갯벌토크쇼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갯벌토크쇼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에게 갯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운동회’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미술소’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보물찾기, 연날리기, 페이스페인팅, 생물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볼 만하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지난 4월부터 무안황토갯벌랜드를 찾으시는 관광객들을 위해 매월 특성화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무안 황토갯벌랜드 홈페이지(<http://getbol.muan.go.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담양군 주민자치대학 전문가 과정 개강

담양군은 지난 17일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공직자 4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대학 전문가 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미을리더 발굴, 자치행정을 펼치는 지방공무원 육성 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날 강의는 전남 미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병교 센터장을 강사로 초빙해 ‘왜 미을은 자치를 하

려 하는가?’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이해, 주민으로 역할 및 자세 등을 내용으로 강연이 이뤄졌다.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며, 주민이 살고 싶은 미을을 직접 만들려면 나갈 수 있어야 진정한 주민자치다”며 “앞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가 담양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을 강조했다.

교육은 9월 말까지 ▲ 미을의 리

더로 산다는 것 ▲ 미을 속의 삶을 연천하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 ▲ 갈등의 이해와 민주적 토론기법 ▲ 우리가 만드는 주민자치대학 등의 다양한 주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흥군, 통합의학박람회 발빠른 준비 돌입

장흥군이 10월 7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15일에는 박람회 태스크포스 회의를 소집하고 박람회장 진입로 및 주변 경관조성 부서별 소관분야 추진상황을 보고를 실시했다.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현장에서 이뤄진 이날 회의는 소관분야 추진상

황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등 내실 있는 접점이 이뤄졌다.

군은 박람회장 진입로와 주변에 국화, 유채꽃, 메밀꽃, 먼나루, 배롱나무 등을 식재해 관람객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장흥군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과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다양한 통합의학 체험을 위한 대학병원과 통합의학 대학교 중심의 진료프로그램, 쇼핑단의료기기 체험 행사 등이 마련된다.

주제관 통합의학 북카페 조성, 박람회장 주제 포토존, 힐링과 치유의 숲속 약초 체험장, 국회향연장,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트리아트, 다크존, 미술·음악치료,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장흥=송호빈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로,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향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방향